

# 4월 출생아 수 1만8천명... '또 역대 최소'

혼인 1만4000건...9개월 만에 감소

4월 2만8000명 사망...역대 두 번째로 많아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만8484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늘어던 혼인 건수도 9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7%(2681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이는 1981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소치다.

4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년5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줄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7581명으로 전년보다 24.8%(9091명)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았던 지난해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커졌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큰 수치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6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

향과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였는데, 4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혼인이 대부분 소화된 건지, 4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건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4월 혼인 건수는 7288건으로 1년 전보다 1.3%(90건)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1.7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이혼 건수는 3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임 과장은 "지난해에는 혼인 기간이 20~30년 이상에서 이혼이 감소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잠재됐던 이혼이 드러나면서 20~30년 이상에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3.4건으로 전년보다 0.3건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

향과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혼인 건수가 증가 추세였는데, 4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혼인이 대부분 소화된 건지, 4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한 건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4월 혼인 건수는 7288건으로 1년 전보다 1.3%(90건) 증가했다. 조이혼율은 1.7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이혼 건수는 3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다.

임 과장은 "지난해에는 혼인 기간이 20~30년 이상에서 이혼이 감소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잠재됐던 이혼이 드러나면서 20~30년 이상에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뜻하는 조이혼율은 3.4건으로 전년보다 0.3건 줄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

## 여수광양항만공사, 중흥부두 위험·유해물질 유출 대응훈련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지난 27일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중흥부두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및 선박 화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광양항 중흥부두는 위험물 액체화물 및 고압가스 제품 등을 취급하는 부두로, 사고 예방활동 및 사고 초기 대응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부두이다.

YGPA가 주최하고 ㈜LG화학, 한화솔루션(주), 효동항업(주)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훈련에는 중흥부두 이용 7개 화주사 및 2개 하역사, 1개 방제업체 약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차 3대, 방제선 4척, 구급차 1대가 동원됐다.

특히 여수해양경찰서와 여수소방서에서 협조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훈련 성과에 내실을 기했다.

훈련은 부두 내에서 선적 작업 중 위험·유해물질 해상 누출 발생 상황을 가정해 밸브차단, 공장 펌프 중지, 오일펜스 설치 등의 방제훈련으로 진행됐다 또한 선박 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소화포 및 워터캐터트 사용, 소방차와 방제선 등을 동원한 조동 소방작업과 인명 구조 작업 등을 실시했다.



수입 캔맥주 내달부터 인상

지난 27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수입 캔맥주 묶음 가격이 1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9.1% 오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주류 매대의 모습. /뉴스시스

## 광주·전남 소비심리 3월 연속 상승에도 1년 넘게 기준치 이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1년 넘게 기준치를 밑돌았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3년 6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이하 심리지수)는 6월중 94로 전월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개선됐지만, 지난해 5월(102.3) 이후 1년 넘게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광주·전남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5월 102.3 ▲6월 93.2 ▲7월 80.6 ▲8월 85.4 ▲9월 87.3 ▲10월 83.4 ▲11월 82.1 ▲12월 84.3 ▲2023년 1월 86.4 ▲2월 85.9 ▲3월 85.6 ▲4월 89.9 ▲5월 90.7 ▲6월 94.0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수로 기준치인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2003~2021)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CSI(85)는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하고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생활형편전망CSI(90)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 수입전망CSI(93)는 전월과 같았고 소비지출전망CSI(112)는 전월 대비 4포인트씩 상승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인 현재경기판단CSI(60)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70)는 전월 대비 5포

인트 각각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CSI(72)는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했고 금리수준전망CSI(105)는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현재가계부채CSI(103)는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하고 가계부채전망CSI(99)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CSI(140)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CSI(100)는 전월 대비 8포인트 상승하고 임금수준전망CSI(115)는 전월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지역 도시가구 중 600가구(응답 56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4~21일 소비자동향조사를 했다.

/권형안 기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전남농협 11억7천만원 출연



NH농협은행 전남본부는 27일 전남본부 5층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전남도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 11억7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출연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재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남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여신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전남본부는 이번 출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62억 2800만원을 출연했다.

정재현 본부장은 "앞으로도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전남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선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차·기아,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20억원 투자

보스반도체에 후속 투자...맞춤형 차량용 반도체 개발 추진



현대차·기아가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보스반도체에 20억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실시했다

보스반도체는 고객사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및 개발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이다. 팹리스는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다.

보스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 안전 및 신뢰성 관련 기술, 자율주행에 필요한 AI 반도체 기술 등에서의 경쟁력을 갖겠다는 평을 받는다.

이번 투자는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금을 우선 제공하고 후속 투자 유치 시 산정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투자로 보스반도체와 전략적 협업을 강화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에 일부 적용 가능한 맞춤형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일부 맞춤형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위해 보스반도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29~30일 '광주·전남 일자리박람회'

우수 중소기업·에너지밸리·코트라 외투기업 등 60개사 참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시, 전남도,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고용노동청,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제5회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와 동시 개최되는 일자리박람회에는 광주·전남 지역 우수 중소기업, 에너지밸리기업, 코트라 외투기업 등 60개사가 참여한다.

29일 한편 에너지밸리기업과 코트라 외투기업, 30일에는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들이 현장 서류접수 및 면접을 할 예정이다.



또 취업 특강, 채용설명회 및 취업전략 등을 소개하는 코트라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 유관기관별·고용정책 홍보관 운영, 취업컨설팅 부스 운영, 퍼스너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권형안 기자

## 광주쌀 '빛찬들' 호주·뉴질랜드 수출길

18t 상당 차류·김치·부각 등 3개 품종 동반 수출

광주 쌀이 호주, 뉴질랜드에 첫선을 보인다.

광주시는 28일 광주농협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광주 '빛찬들' 쌀 18t을 호주, 뉴질랜드로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선적식에는 광주시 관계자와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지역농협조합장, 지역 농식품수출협의회 수출기업과 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빛찬들 쌀은 총

18t(840포, 20kg 기준), 3400만원 상당이다.

또 한국제다 차류 3종(300만원), ㈜드레한 김치류 3.5t(1000만원), 느린마을 부각류(200만원) 등 총 3개 품종(1500만원)이 동반 수출된다.

이날 선적된 쌀은 29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배역을 거쳐 7월11일 호주, 뉴질랜드로 향한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세 차례 추가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형안 기자

## 내달 7~9일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우수 수공예품 전시·판매

지역 최대 수공예품 전시행사인 빛고을 핸드메이드 페어가 다음달 7~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제2·3전시장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재능과 솜씨로 빛어낸 우수 수공예품의 홍보마케팅과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공예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2번째인 이번 행사에는 189개 공방이 참여해 다양한 수공

예품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부스는 271개로 ▲일반공방관 ▲공예명품관 ▲광주 우수공예브랜드(오렌즈) 홍보관과 대한민국 공예대전 입상작 전시관 ▲대학관 등으로 구성된다.

7일 오후 2시 김대중센터 1층 전시장 입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오렌즈 브랜드 상품 지정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된다. 올해는 4개 작품이 광주 대표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됐다. /조선주 기자

## 광주식약청장 '지오메디칼' 방문 의견청취

"고품질 콘택트렌즈 생산 함께 노력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 수경 청장은 6월 29일 관내 콘택트렌즈 제조업체 '지오메디칼' (광주시 소재)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오메디칼은 IOS 13485, CE 인증, FDA 501 등을 획득한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로 2022년 매출 242억원을 달성, 국내와 일본에 콘택트

렌즈를 공급 중이다.

이수경 광주식약청장은 현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콘택트렌즈 생산을 위해 제조·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오메디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콘택트렌즈가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청과 지오메디칼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권형안 기자

## 광양제철소, 부두 출입관리 센터 설립 준공



광양제철소가 27일 포스코 부두 출입관리 센터 준공식을 갖고 부두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한 관리센터 운영을 본격화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4일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 하역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부두 출입관리 센터를 구축, 하역회사 직원 및 항운 노조원 등 부두의 출입자에 대하여 법적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장소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포스코 부두 출입자에 대한 안전복장 착용 규정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을 대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광양·조선주 기자